

## “비상계엄 1년, 부조리한 세상 바뀌어야”

어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회견  
22일까지 제주시청 앞 ‘제주광장 123일의 기록’ 전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부·국회·기관·단체 책임 강조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제주에서 내란의 완전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3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평등사회로의 사회대전환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은 위험적 계엄에 경찰을 동원했다고 고개 숙였다”며 “하지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내란수와 윤석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변호인단과 이를 옹인하는 재판부 등 내란 옹호 세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내란 진상규명과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사면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에 맞서 연대와 평등의 광장을 열었던 시민들은 윤석열 탄

핵을 넘어 불평등과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자고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는 광장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강행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있고, 폭우와 폭염 속 속도경쟁을 강요받으며 일하다 죽어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12·3 계엄 1년,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열

었다.

이와 함께 제주행동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제주시청 구 버스정류장에서 ‘12·3 비상계엄 1년, 제주광장 123일의 기록’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파면에 이르는 여정에 함께한 제주 시민들의 기록을 담았다.

양유리기자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등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내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도, 내년 국비 128억 추가 확보

4·3 피해보상 70억 증액... 푸드테크센터 20억도  
“정부와 국회 상대 예산 절충 활동의 결과” 자평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11개 사업 1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사업 10건 58억원과 국가 직접 지원 사업 1건 70억원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20억원) ▷제주 권역 인공지능 대전환(AI) 사업(5억원)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5억원) ▷이촌체험형 위케이션 빌리지 조성(9억5000만원) ▷제주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5억원) ▷서귀포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1억5000만원) 등이다. 계속 사업에는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6억5000만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사업(2억5000만원)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는 제주4·3 피해 보상 70억원 증액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 권역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되면서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제주 사회와 산업을 재편할 발

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1993년 건립된 서귀포권 거점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 지원 설계비가 반영돼 위판장 수용 한계와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국비 증액은 지난달 5일 정부예산안 공청회 이후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서 공직자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펼친 절충 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3일 개최한 국제선 여객 최대 달성 기념행사.

##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 ‘3백만 시대’ 눈앞 3일 기준 280만명... 역대 최고 2016년 274만명 추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썼다. 항공·관광 융합 마케팅에 K-콘텐츠 인기에 힘입은 인바운드 수요가 더해지면서 여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연말까지 첫 300만명 돌파가 전망되고 있다.

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국제선 누적 이용객은 280만 여명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245만명)은 물론 종전 최고치였던 2016년(274만명)을 넘어섰다. 여객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폭삭

속았수다’ 등 K-콘텐츠 인기에 따른 인바운드 수요 확대가 꼽힌다.

제주공항은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해 올해 초부터 ‘항공·관광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 콘텐츠 연계 행사와 시즌별 특화된 홍보부스 운영 등 공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제주관광의 감성을 공항 운영에 적극 활용한 항공·관광 융합 마케팅과 해외 공항과의 직접적 협력이 맞물리며 국제선 여객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 12월 제주 스포츠로 ‘들썩’ 32개 대회에 1만여명 출전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한 달간 도내에서 32개 스포츠대회가 열려 1만946명의 선수가 제주를 찾는다고 3일 밝혔다.

전국대회로 ‘2025 제주컵 전국유도대회’가 1~4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려 선수와 관계자 등 2300여명이 제주를 방문했다. 6일에는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해동검도대회’가 7일에는 ‘2025 제주 전국유도

슬론대회’가 개최된다. 또 14일에는 ‘2025 제주 전국아쿠아슬론대회’가 열리고 18일부터 24일까지 ‘제9회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 최강전 겸 2026년 청소년 상비군 선발전’이 개최돼 제주가 겨울철 스포츠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도내 대회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협회장배 전도파크골프대회, 2025 제주도역도연맹회장배 생활체육 전도동호인역도경기대회,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인 족구대회 등이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외국인관광객 느니 또 번지는 ‘불법영업’... 4면

1학생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26년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 실시

사업 목적

정규수업시간에 프로그램 운영하여 초등학생 비만을 해소에 기여

-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시 종목별 지도자 파견

-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력 증진 및 비만을 해소에 기여

학생이 선택한 종목을 학교 또는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전문지도자와 함께 하는 『1학생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업내용	【학생선택형】사업으로 정규수업 시간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운영대상	우선순위별 선정 - 1순위 : 읍·면지역 초등학교(전학생 참여) - 2순위 : 동지역 200명 이하 원도심 초등학교(전학생 참여)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대상 공모를 통한 신청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학교생활체육부

064-717-7144